

사회

# 학교폭력 징계 올해만 2200건

### 광주·전남 초·중·고생 학생부 기록 대상

### 전남 전교조 “2학기까지 3000명 말할 듯”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야 할 학교폭력 피해 처분건수가 무려 20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올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가 학생부에 기록해야 할 학교폭력 피해 처분건수가 1370건에 달했다. 전남의 대상건수는 858건이다.

이는 각 학교에 있는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들을 모두 9단계로 나눠 조치(징계)한 내용으로, 한 학생이 2개 이상 범죄처

분을 받은 건수까지 합산한 수치다. 조치 항목은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조치·퇴학처분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사실의 기록을 훈령으로 정해 학교에 적도록 하고 있다.

광주 초교의 학폭위 처분 건수는 80건, 중학교 1037건, 고교 253건으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많았음을 입증했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처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의 경우 학생부 기재 대상 조치건수는 858건이다. 이는 전교조 전

남지부가 최경석 전남도의원으로부터 입수, 공개한 자료다. 학교급별로는 초교 88건, 중학교 434건, 고교 336건이었다. 범죄처분을 감안하더라도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치 유형별로는 초교의 경우 서면사과(35건), 접촉금지·교내의 봉사 등 가벼운 조치를 받은 학생 1000명의 경우 최근 전남도교육청에서 확정한 기재방침에 따라 속려기간을 거쳐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협의를 거쳐 학교폭력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학폭위에서 1차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생활태도를 개선하면 다시 심의를 해 학생부에 학폭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협의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학폭위에서 1차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생활태도를 개선하면 다시 심의를 해 학생부에 학폭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폭위로부터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전남지역 학생이 현재까지 1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올 2학기까지는 무려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들 가운데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의 봉사 등 가벼운 조치를 받은 학생 1000명의 경우 최근 전남도교육청에서 확정한 기재방침에 따라 속려기간을 거쳐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협의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학폭위에서 1차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생활태도를 개선하면 다시 심의를 해 학생부에 학폭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폭위로부터

## 도둑들 ‘돈 냄새엔 귀신’

### 도둑경력 30년 50대 등 농촌 돌며 빈집털이 억대 현금·귀금속 훔쳐

지난 2일 오후 2시에 보성군 득량면 한 마을에 나타난 최모(50)씨, 또 다른 최모(37)씨 등 2명이 한 교육원의 관사를 서성거렸다. 농촌에 자리한 공무원·기업 등의 관사와 숙소만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이들은 그러나 교육원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목표를 수정했다. 외관이 깨끗하고 고가의 건축재료로 지어진 바로 옆 주택을 털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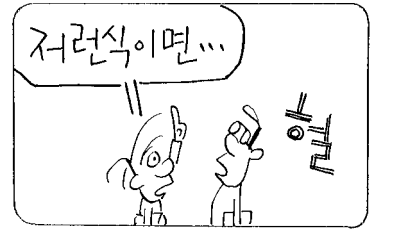
마침 집은 비어있었고, 그들은 이 집에서만 현금 3500만원과 1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절도 등 전과가 각각 13번, 18번에 도둑 경력만 무려 20~30여 년인 이들이 ‘돈 냄새’를 맡은 것이다. 집주인 A(60)씨는 4일 농협조합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돈이 선거자

금이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뒤인 지난 4일 오후에도 최씨 등은 B(여·45)씨가 거주하고 있던 보성을 보성교육지원청 관사에 침입했다. 여기서 훔친 것은 무려 5200만원 어치의 귀금속, 귀금속 수집이 취미였던 B씨는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패물도 그동안 모아둔 금붙이, 보석 등을 모두 털었다. 이들은 금 순도를 알 수 있는 시약, 다이아몬드 감별기, 금 무게 측정기 등으로 감정까지 해가며 ‘가짜’는 놔두고 ‘진짜’만 가져갔다.

보성경찰이 이들을 붙잡은 것은 지난 9일. 이들에게 남은 것은 현금 2500만원 뿐이었다. 범행 5일 만에 이들은 귀금속을 모두 장물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전문털이범으로 11월까지 파악된 여죄가 10건에, 피해액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백기자 kyb@

## 나원침 (8646) 김중두



### 검찰, 배기운 의원 조사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가 지난 9일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배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추차된 차량 연락처 보고 음란전화

○추차된 차량의 전화번호를 보고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걸어 처벌받은 적이 있는 10대가 또다시 못된 짓을 했다가 경찰서행.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모 대학 휴학생인 오모(18)군이 지난 8일 오전 11시에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율동 주차장에 주차된 A(26)씨 등 3명의 차량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어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성 등을 보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동일 전과가 있는 오군이 발신번호 표시제한 장치를 이용하며 6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 같은 짓을 해왔다”며 혀를 끝갈.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산구 아파트서 母子 숨진 채 발견

### “미안하다” 메모

지난 10일 밤 9시22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A(여·33)씨와 아들(2)이 숨져 있는 것을 퇴근한 남편(3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경찰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들이 숨져 있었고, 구토 흔적도 보였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거실에서 반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으며, 약품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들은 다른 방 침대에서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입가에서는 거품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목포대교 자살 막아라” 감시원 24시간 배치

### 5명 투신에 민간단체 나서

개통 이래 투신자살이 잇따르면서 ‘자살대교’의 오명을 받고 있는 목포대교의 자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된다.

목포시는 목포대교 주탑 부근에 2인 1조로 24시간 대기 위를 지키는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목포시민연합경찰, 목포신안자율방방대, 목포해병대전우회 등 3개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회원들을 1일 1

조 2명씩을 투입해 자살빈도가 높은 야간 시간대에 목포대교 전 구간 순찰을 통해 투신자살을 저지하는 감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개통한 목포대교는 지금까지 7월 4일 광모(34·목포시), 15일 최모(40·광주시), 8월 3일 김모(34·무안군), 14일 정모(33·광주시), 30일 채모(36·목포시)씨 등 5명이 투신자살했고 지난 6일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 신모(30·목포시)씨는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훈기자 lyc@



노염모기 방역 11일 광주시 북구청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신안교 주변 하천둔지에서 일본 노염 매개모기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고생 성추행 교장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 대법원 판결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장에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한 여고 전 교장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5항, 2항 위반죄로 기소할 부분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자신의 관사 안방에서 당시 16세이던 A학생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시키는 등 교장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 기소됐다. /연협뉴스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몰래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